

이황과 김인후의 「천명도」 개정과 인간학의 정립

추 제 협*

1. 조선성리학사에서 천명도의 위상과 문제의식
2. 「천명도」 판본의 논란과 검토 대상
3. 정지운의 「천명도해」 작성
4. 김인후의 「천명도」 개정
5. 이황의 「천명도」 개정
6. 「천명도」의 개정과 인간학의 정립

국문초록

이 글은 「천명도」의 개정과정을 재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정지운의 「천명도」가 김인후를 거쳐 이황에게서 완성되는 과정과 그 변화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지금의 「천명도」가 당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의 학술적 담론으로 얻은 최종 성과물이자 조선 유학이 시도하는 인간학의 정립을 위한 출발점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천명도」는 정지운이 천명이란 인간과 우주의 관계 속에 인간의 위상을 나타내는 그림의 대략적 구도를 그렸다

* 대구대학교 강사 / kugly@daum.net

면 김인후는 여기에 인간의 길을 설정하였으며 이황은 이를 종합하고 재구성하여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정지운, 이황, 김인후, 천명도, 인간학

1. 조선성리학사에서 천명도의 위상과 문제의식

조선에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도설圖說에 대한 관심은 깊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방대하고 복잡한 성리학을 간명하게 간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심층적 문제의식을 언어가 아닌 다른 상징체계로 드러내는 철학적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도설은 유학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고, 우리에게는 그 온축된 생각의 단초를 제공했다.

특히 권근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황에게서 그 정점을 보여준 「천명도天命圖」는 이러한 도설圖說史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유학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익히 알다시피 「천명도」는,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太極圖」에서 보여준 우주의 생성 과정인 천도天道에 대한 인도人道와 그 합일合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이후 사단칠정四端七情,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 등과 같은 보다 진전된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이러한 천인심성이 중국에 대한 조선 유학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

「천명도」는 정지운鄭之雲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그 단초는 권근權近에게서 비롯되며 스승이었던 김안국金安國, 김정국金正國 등 여러 사람들에 의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급기야 상황은 이황李滉에게 이르러 정리되는 듯했지만 기대승奇大升과의 논쟁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여기서 기존의 연구는 사단칠정논쟁에 집중했고, 이에 대한 지나친 천착은 오히려 그 빌미를 제공했던 「천명도」에 대해서 소원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논쟁이 명확한 이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전히 쟁점에 대한 상이한 견해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산 속에서 길을 헤맬 때는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다. 논쟁의 출발점인 「천명도」에 대한 논란을 되짚어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¹⁾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천명도」의 개정과정을 재검토해 보려고 한다. 특히 정지운의 「천명도」가 김인후를 거쳐 이황에게서 완성되는 과정과 그 변화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지금의 「천명도」가 당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의 학술적 담론으로 얻은 최종 성과물이자 조선 유학이 시도하는 인간학의 정립을 위한 출발점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간학이라 함은 이황을 위시한 조선 유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한 것이 인간의 자기실현과 완성에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순천한 본성에 대한 강한 신뢰와 희망에서 비롯되었고,²⁾ 이러한 경향은 이후 일련의 논쟁을 통해 감정과 마음 등 내면의 천착으로 이어지면서 조선유학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천명도」에 대한 연구가 없지 않았다. 「천명도」의 여러 판본에 대한 관계와 교정³⁾, 거기에 드러난 성리학적, 도상적 형태의 차이점⁴⁾을 밝히는 것들이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양이 많다 할 수 없고 그 대부분은 이황의 「천명도」에 집중되었다. 물론 수확도 있었다. 정지운의 원도를 발견하는가 하며 김인후의 「천명도」에 주목했다. 특히 김인후는 이황과 마찬가지로

1) 비슷한 관점을 제시한 연구로는 김보름이 있다. 그는 천명도가 사단칠정논쟁의 시발점 정도로 저평가되었다고 비판하고 퇴계철학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천명도」이기에 사단칠정논쟁의 의의 또한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김보름, 「퇴계의 천명도설을 통해 본 자연과 인간의 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2004.).

2) 추계협, 「이황의 사단칠정론과 마음공부」, 『안동학』 13집, 한국국학진흥원, 2014, 138~139쪽 참조.

3) 다음의 연구가 중요한 참고가 된다. 유정동, 「천명도해고」, 『유교의 근본정신과 한국 유학』, 성균관대 출판부, 2014; 정병린, 「추만의 「천명도설」 제작과 퇴계의 정정」, 『철학』 38집, 한국철학회, 1992; 김용현, 「고봉 기대승의 사칠논변과 천명도」, 『전통과 현실』 8집, 고봉학술원, 1996; 정경훈, 「추만 정지운과 『추만실기』」, 『유학연구』 2집, 충남대 유학연구소, 2010; 방현주, 「「천명도」의 판본문제 고찰」, 『한국철학논집』 40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4.

4)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유정동, 「천명도설에 관한 연구」, 『동양학』 12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2; 유권중, 「천명도 비교 연구: 추만, 하서, 퇴계」, 『한국사상사학』 19집, 한국사상사학회, 2002; 이정환, 「퇴계 천명도설과 천명도에 대한 철학적·도상적 재검토」, 『퇴계학보』 135집, 퇴계학연구원, 2014.

지로 정지운의 요청으로 직접 수정 작업에 동참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천명도」를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논쟁에 중요한 매개가 되기도 했다. 그 결과 상이한 작법과 특히 인형人形 부분에 나타난 차이는 그들이 천인심성에 대한 이해의 편폭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에만 집중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차이점을 지나치게 부각하다보면 이들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사상이란 그 사상이 잉태한 문제적 토대와의 대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영향관계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정지운의 「천명도」로부터 이황의 「천명도」가 정립된 데에는 그들 각자의 철학적 견해와 주변의 조언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김인후는 그 중 가교로써 두드러진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그의 견해가 기대승에게로 이어지면서 이황과는 다른 하나의 사상적 흐름을 예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생각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정지운의 「천명도」를 분석하는 데에서부터 김인후와 이황의 개정 과정에서 중요시 했던 점을 중심으로 그 변화와 의미를 살펴보는 데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여기에 기존의 연구 성과는 훌륭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이를 풍부하게 활용하여 이해의 지평을 좀 더 확대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2. 「천명도」 판본의 논란과 검토 대상

논의에 앞서 판본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작성 시기가 불명확하다보니 그동안 이에 대해 착오가 없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명구도」가 정지운이 지은 것이고 「천명신도」는 이황의 개정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다.⁵⁾ 지금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통해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

그 결과 정지운의 천명도인 「추만정선생천명도」, 김인후의 천명도인 「하서김선생천명도」, 이황과 정지운의 천명도인 「천명구도」, 이황의 천명도인 「천명신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정지운과 김인후의 천명도는 각각 1543년과 1549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전하는 『추만실기秋巒實記』에 「추만정선생천명도」와 「하서김선생천명도」라는 이름으로 그림과 함께 서가 수록되어 있어 그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추만실기』에 수록된 세 개의 그림인 「퇴계이선생천명도」, 「천명구도」와 「천명신도」이다. 이를 『퇴계문집』에 실려 있는 「천명구도」, 「천명신도」와 비교해 보면 다소 혼란스럽다. 선행 연구에서는 『추만실기』에 실린 것은 논의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⁶⁾ 『퇴계문집』에 실린 판본과 도상에서 차이가 나고 부정확한 표현 또한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정지운이 「천명도」를 만든 이후 다양한 경로로 유포되었다는 사실, 이황 또한 여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문제는 그 선후인데, 이를 우선 짐작해볼 수 있는 방법은 사단칠정에 대한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계이선생천명도」는 함께 실린 「천명구도」와 유사하지만 사단과 칠정의 언급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전자는 ‘사단리지발四端理之發’과 ‘칠정기지발七情氣之發’로, 후자는 ‘사단지발순리고무불선四端之發純理故無不善’과 ‘칠정지발겸기고유선악七情之發兼氣故有善惡’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퇴계문집』에 실린 「천명구도」에는 ‘사단발어리四端發於理’, ‘칠정발어기七情發於氣’로, 「천명신도」에는 ‘사단리지발’과 ‘칠정기지발’로 되어 있다.

사단칠정논쟁에서 이황의 수정안을 보면⁷⁾, ‘사단발어리’와 ‘칠정발어기’에서 ‘사단지발순리고무불선’과 ‘칠정지발겸기고유선악’으로, 다시 ‘사단리지발’

5) 자세한 내용은 김용현, 앞의 논문 참조.

6) 이정환, 앞의 논문, 13쪽.

7) 추제협, 앞의 논문, 140쪽.

과 ‘칠정기지발’로 바뀐다. 이를 고려하면, 『퇴계문집』의 「천명구도」, 『추만실기』의 「천명구도」, 『추만실기』의 「퇴계이선생천명도」, 「천명신도」, 『퇴계전서』의 「천명신도」로 정리된다. 그림의 큰 변화로는 『퇴계문집』의 「천명구도」와 「천명신도」만 언급해도 무방하며, 나머지는 논쟁 과정에서 부분적인 수정을 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집에 실린 두 판본의 저작 연도를 보면 전자는 1553년이고 후자는 1558년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글은 개정 과정의 총체적인 면모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기에 앞서 언급한 정지운의 『추만실기』와 『퇴계문집』에 수록된 도와 해를 모두 검토 대상으로 했다.

3. 정지운의 「천명도해」 작성

정지운鄭之雲(秋繼, 1509~1561)은 「천명도해」의 자서에서 천인의 도를 동생의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옛 선현들의 의논을 모아 도를 그리고 해를 덧붙인다고 했다. 이어 그 올바른을 질정 받고자 스승인 김안국과 김정국에게 물었으나 갑작스런 죽음으로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만다.⁸⁾ 「천명도」의 유포는 아마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테다.

「천명도해」에는 「추만정선생천명도」와 이에 대한 9개 조목의 해설과 잡해雜解가 있다. 우선 그림을 간략히 살펴보자. 그림은 천형天形과 지형地形, 인형人形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천형은 세 겹의 원으로 표시하고 그 안에 지형의 방형方形이, 그리고 두원족방頭圓足方의 인형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천형과 지형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형상으로 연결하고 명命이라 적었다. 이는 『중용中庸』의 천명에서 확인되는 성性이다. 즉 리일분수理一分殊

8) 『秋繼實記』, 「天命圖說序」, “嘉靖丁酉, 先生被召還朝, 之雲, 失其依歸, 與舍弟之霖, 講學于家, 論及天人之道, 則之霖, 以幼學, 患其無據, 莫能窺測, 余於是試取朱子之說, 叅以諸說, 設爲一圖, 而又爲問答, 名曰天命圖說, 日與舍弟講之, 此初非欲示諸人而作也. 然圖既草, 則亦不可不見正於長者, 遂就質于慕齋思齋兩先生, 兩先生不深責之, 且曰未可輕議, 姑俟後日, 不幸兩先生, 相繼以歿, 嗚呼痛哉!”

의 원리에 따라 만물이 생겨날 때 하늘로부터 하나의 리를 명하게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 만물의 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심에 인간이 있으며, 그 인간의 주체가 마음에 달려 있으니 이를 연결하여 천인합일天人合一을 표현하고 있다.

우선 천형의 원은 12지의 시간과 방위를 나타내는 큰 원 안에 원형이정의 사덕과 그 속성인 성誠, 그리고 음양오행 순으로 표시했다. 이들은 모두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순환의 고리로 표현하여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여기에다 흑백의 소장消長으로 음양을 표시하여 함께 연결함으로써 리와 기의 불리不離와 부잡不雜의 관계도 고려했다.

한편 지형의 방형 안에 인간, 금수, 초목을 구분하여 그렸다. 이들은 오성즉 인의예지신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은 전체가 온전한 것을 받고, 금수는 하나로만 소통하며, 초목은 전체가 막혀 소통하지 못한다. 이는 성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기질의 차이인 편정偏正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흑백으로 표시했다. 그래서 인간은 바르게 서 있으나 금수는 옆으로, 초목은 거꾸로 그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인간이 만물의 으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인형의 두원족방은 원이 크고 방이 좁은 형태로 되어 있다. 그 안에 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 마음이 천형을 닮고 천명을 이어받았기에 리는 성에, 기는 정에 연결하였다. 즉 천형에서 천의 덕인 원형이정이 인형에 사성인 인의예지가 되며 천형에서 사덕인 체에 대한 용인 기의 음양오행이 인형에 칠정인 회노애락애오욕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행 중 토가 나머지에 영향을 주듯 욕 또한 그러하여 감정이란 언제든지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래인데, 마음에 의의를 거꾸로 적고 선과 악이 갈라지되 이를 직선과 곡선으로 그렸다. 의의를 마음의 의향이라 할 때, 이는 외물이 이르러 마음이 움직이면 발한다. 이에 따라 정의 총칭으로 칠정에 선과 악의 분기가 일어남을 부각했다. 자연히 이러한 분기에 마음공부를 설정하게 된다. 원 안의 감정이

발하기 전에 존양存養과 원 밖의 발한 후에 성찰省察을 모두 경敬으로 일관해야 함을 보여준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9개의 절과 잡해가 있는데, 그 순서는 「제일절第一節 논천명지리論天命之理」, 「제이절第二節 논오행지도論五行之道」, 「제삼절第三節 논물생지원論物生之原」, 「제사절第四節 논인물지수論人物之殊」, 「제오절第五節 논차심지구論此心之具」, 「제육절第六節 논성정지목論性情之目」, 「제칠절第七節 논선악지분論善惡之分」, 「제팔절第八節 논기질지품論氣質之品」, 「제구절第九節 논존성지요論存省之要」이다. 이는 정지운이 말한 대로 여러 동우의 조언으로 계속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다. 가령 「천명도설」에서 보이는 10절의 형태가 아니라는 점, 6절에 소주로 김인후의 말이 붙어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물론 이 역시도 이황의 수정이 일정 부분 가해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없지 않다.⁹⁾ 이황이 후서에서 두어 달에 걸쳐 정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에서 가능한 일이긴 하나 그림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정지운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럼 이를 참고하여 정지운의 「천명도」에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지적해둔다. 첫째, 천명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주역周易』을 염두에 둔 설정이다.

대개 물은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이를 생하는 뿌리가 되었으니 그 기의 뿌리가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겠는가? 하물며 모든 음양의 기가 모두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감으로 주역을 지은 성인도 괘를 그릴 때에는 반드시 하효下爻로써 초효初爻를 삼았으니 이 점 또한 꼭 알 점이다.¹⁰⁾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음양이 소장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양기가

9) 안유경, 「천명도설로 보는 심성구조」, 『퇴계학과의 심성론』, 서울: 심산출판사, 2016, 121쪽.

10) 『秋巒實記』, 『天命圖解』, “盖水爲居下之物, 而爲此生物之根, 則其氣之根, 不從乎下而何所從也. 況音凡陰陽之氣, 皆自下而上. 故作易聖人, 亦於畫卦之際, 必以下爻爲初, 此亦不可不知者也.”

생겨 자라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정지운이 아래에 자자를, 위에 오수를 두고 자에 명을 적은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철저한 우주론적 관점에서 만물 생성의 근원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주역周易』의 「복괘復卦」에 대한 김인후의 말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둘째, 천리의 원형이정과 음양오행을 성정의 조목에 맞춤으로써 천인이 일체함을 보이코자 했다.

사람의 사성四性は 바로 하늘의 사덕四德이고, 사람의 칠정七情은 바로 하늘의 오행五行이다. 그러므로 인仁과 원元, 예禮와 형亨, 의義와 이利, 지智와 정貞이 하나의 리理이며, 희애喜愛와 목木, 락樂과 화火, 노오怒惡와 금金, 애哀와 수水가 하나의 기氣이다. 신信은 성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의예지 속에 모두 있고, 욕欲은 토土에 해당되는 것으로 희로애락애오 속에 모두 있다. 이 그림에는 같이 표시해 천天和 인인이 일체一體임을 알게 한 것이다.¹¹⁾

성과 정을 사덕과 오행에 맞추어 설정했다. 사덕인 원형이정을 인의예지에, 오행을 칠정에 분속시켰다. 즉 희애를 목에, 락을 화에, 노오를 금에, 애를 수에, 욕을 토에 맞추어 배열했다. 이는 천의 운행이 인간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 결국 천명을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인간과 동식물, 인간과 인간의 동이同異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질의 편정偏正, 청탁수박淸濁粹駁에 따라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면서 성의 동일성 또한 강조한다.

사람과 사물에 기가 비록 통색의 차이는 있으나 성은 있지 않은 물건이 없

11) 『秋巒實記』, 『天命圖解』, “人之四性, 卽天地四德也, 人之七情, 卽天地五行也. 故仁與元, 禮與亨, 義與利, 智與貞, 爲一理也, 喜愛之於木, 樂之於火, 怒惡之於金, 哀之於水, 爲一氣也. 至於信, 則配乎誠, 而俱在於仁義禮智之中, 欲則配乎土, 而俱在於喜怒哀樂愛惡之中. 此圖之所以相準列之, 使知天人之爲一體也.”

기 때문에 비록 초목이 지식이 없으나 또한 오성이 나타나는 곳이 있다. 대개 봄에 사물이 생겨날 때에 싹이 씨에서 나오고 뿌리가 씨에서 나오는 것은 인의 도이며, … 초목의 심이 비록 지식은 없으나 그 성은 하늘을 따라 밖에 나타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전혀 막혀 통하지 못한다고 하여 초목에 성이 없다고 말하겠는가?¹²⁾

인간과 동물, 초목이 다른 것은 성을 모두 받지만 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초목에도 오상인 인의예지신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는 리와 기 중 어느 측면을 중요시 하는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18세기 격렬한 논쟁이었던 인물성동이논쟁의 단초를 여기서 볼 수 있다.

셋째, 사단과 칠정 중 칠정만 구분하여 선과 악의 갈림을 그렸다는 점이다.

성은 천명의 리이고 정은 성이 발한 것이며 심은 성정의 주이고 의는 심이 발한 것이다. … 이 심이 발하기 전에는 성이 혼연하여 기가 용사하지 않기 때문에 갖춘 것은 다만 이 천리뿐이다. 이미 심이 발한 뒤에는 기가 비로소 용사하여 그 성이 천착되기 때문에 발하는 것이 비로소 선과 악의 나눔이 있으니 이것은 선악의 싹이 성에 근원하지 않고 기에 근원하기 때문이다.¹³⁾

심이 발하기 전에는 리만 갖추어져 있기에 악이 있을 수 없지만 발하게 되면 기가 용사하여 정에 선악의 가능성이 내재하고 이 때 의가 발하여 천리天理의 공公이나 인욕人欲의 사私를 좇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에서는 이 갈림만을 편의에 따라 나타낸 셈인데, 이것은 결국 리와 기에 대한 사단

12) 『秋巒實記』, 『天命圖解』, 「雜解」, “人物之際, 氣雖有通塞, 而性無有不存, 故雖在草木之無智識, 而亦有五性之發見處. 蓋當春和生物之時, 芽者自芽於甲, 根者自根於亥者, 仁之道也. … 草木之心, 雖曰無智識, 其性則能順乎天, 而發見於外者, 如是, 豈以全通塞不通, 謂草木無其性哉?”

13) 『秋巒實記』, 『天命圖解』, “性卽天命之理, 而情爲性之所發, 心卽性情之主, 而意爲心之所發. … 此心 未發之前, 渾然爲性, 而氣未用事, 故所具者, 只此天理而已. 此心已發之後, 氣始用事, 而其性, 鑿矣, 故所發者, 始 有善惡之分, 此 善惡之萌, 所以不根於性, 而根於氣者也.”

을 언급하지 않은 채 칠정만을 분리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악 또한 발한 이후의 문제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리기의 발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적 선택에 따라 선과 악이 나뉜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에 따라 공부론을 자연스레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마음공부인 경敬을 미발未發과 이발已發 상태에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자의 학문은 이 심이 발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존양공부를 하여 항상 경을 주로 하고 이 심이 발할 후에는 반드시 성찰공부를 하여 또한 경을 주로 한다.¹⁴⁾

마음에 감정이 발하기 전에는 그 체인 리만 존재하기에 이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감정이 발할 때 의가 작용하여 성찰함으로써 용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군자의 학이란 결국 마음공부를 경으로 일관하는 데에 있으며 그림의 핵심 또한 여기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황이 강조했던 일관된 경공부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러한 특징적인 면에 비해 애매한 부분 또한 없지 않다. 즉 정지운은 사단을 배제하고 성에서 발한 감정을 칠정이란 총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도가 그림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의의 강조로 인간의 의지적 판단에 좌우된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의가 심과 성, 정에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과 설명도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리기의 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직 갖지 않은 듯하다.

이제 이러한 특징들이 김인후의 개정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차례이다.

14) 『秋巒實記』, 『天命圖解』, “君子之學, 當此心未發之時, 必加以存養工夫, 而常主於敬, 當此心已發之時, 必加以省察工夫, 而亦主於敬.”

4. 김인후의 「천명도」 개정

김인후金麟厚(河西, 1510~1560)는 1540년에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아갔으나 인종의 죽음에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에만 전념한다. 그는 이황, 노수신, 정지운, 기대승, 이항 등 당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교분을 가지는 가 하며 학문적 논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특히 정지운, 기대승과의 인연은 「천명도」 개정과 이로 인해 비롯된 사단칠정논쟁에 중요한 시사를 제공한다.

김인후가 「천명도」를 그린 것은 1549년이다. 정지운이 「천명도」를 수정해 줄 것을 제안하자 이를 살펴보고 의견을 나눈 뒤 개정된 자신의 「천명도」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천명도」는 『추만실기』에 「하서김선생천명도」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고, 그 앞에 짝막한 후서後叙가 붙여져 있다. 「천명도」에 대한 김인후의 언급이 부족한 가운데 앞서의 내용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그림의 대략을 살펴보면, 천지인을 세로로 나란히 쓰고 형形자를 삭제했다. 천의 모습은 정지운의 「천명도」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천과 지를 명으로 연결하고 이를 받은 것으로 인간과 금수, 초목의 구분을 둔 점도 다르지 않다.

다만 차이는 인간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천명을 받은 인간은 이를 마음에 ‘중中’으로 간직한다. 중은 『중용』에서 말하는 회노애락애오욕의 칠정이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¹⁵⁾으로 다름 아닌 성이다. 이는 중의 좌우로 쓴 “인의예지의 리를 구비하고 있으나 혼연하여 구분하기 어렵다.”¹⁶⁾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발하지 않는 순수한 본선을 가리킨다. 그 밖의 원에 칠정이 있는데 음과 양으로 나누어 배치했다. 즉 회애오는 음

15) 『中庸或問』, “天命之性, 萬物具焉, 喜怒哀樂各有攸當, 方其未發渾然在中, 無所偏倚, 故謂之中, 及其發而皆得其當, 無所乖戾, 故謂之和.”

16) 『秋巒實記』, 「河西金先生天命道」, “具仁義禮智之理, 而渾然難分.”

에, 애락노는 양에 분속하여 모두 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아래에는 욕에 쌓여있는 것으로 표시하여 칠정이 언제든지 욕에 이끌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원 밖에 세 개의 선을 그어 기幾자를 나눈 위에 선화善和를 중앙에 두고 과過와 불급不及을 좌우로 배치했다. 이는 칠정이 발한 상태에서 중절中節과 부중절不中節에 따라 선과 악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여기서 선화는 선이 되며 과불급은 악이 됨을 알 수 있다.

앞서 정지운의 「천명도」를 참고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천과 인의 모습은 정지운의 「천명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김인후가 평소 「태극도설」과 「서명」을 깊이 읽었고¹⁷⁾ 천인합일의 견해를 갖고 있었기에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천명도」에 붙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 하늘의 명은 깊고 깊어 다함이 없으니 생생지리生生之理가 일찍이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다. 그 타는 기틀은 음양이라 하고 움직이고 멈추는 것이 서로 그 뿌리가 되어 만물을 같이 길러주고 서로 통하도록 한다. 다만 형기의 사사로움에 구속되면 이를 알지 못하니 오직 천하의 총명과 예지로서 지극한 정성으로 쉽 없이 그 타고난 성을 다 실현할 수 있는 자만이 마침내 그 기미를 살필 수 있다.¹⁸⁾

생생지리란 생의生意로 자연의 변함없는 순환과정에서 만물의 생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인간은 바로 하늘의 이러한 생의를 성으로 받아 태어난다. 물론 이것은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그림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인간이 기질에 통통과 정正을 얻어 이것이 왜곡되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¹⁹⁾ 여기에 천명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형상을 취한 것은 이 생생지리와 관

17) 『河西先生全集附錄』 권3, 「年譜」, “三十六年丁巳[先生四十八歲], 著周易觀象篇, 西銘事天圖, 先生於太極圖說, 西銘等書, 積累玩索, 讀至千遍, …”

18) 『秋巒實記』, 「河西金麟厚後序」, “維天之命, 於穆不已, 生生之理, 未嘗間斷. 所乘之機, 曰陰與陽, 一動一靜, 互爲其根, 萬物竝育, 相爲流通. 但梏於形氣之私, 不能知之. 惟天下聰明叡智, 至誠無息, 能盡其性者, 乃能有以察其幾焉.”

19) 『河西先生全集』 권11, 「跋, 大學講義跋」, “氣有通塞, 質有偏正, 通之中有清濁焉, 正之中有純駁焉.”

련하여 『주역』의 「복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주역』에 ‘복에서 천지의 마음을 본다.’라고 하였으니 천지는 물을 낳는 것으로 마음을 삼는다. 건괘가 부스러져 곤괘가 되어 모든 양이 녹아 다 하면 생생지리는 흑시라도 거의 종식될 것인데, 동짓날 자시의 반에 하나의 양이 처음 움직이면 그 움직임의 끝이 ‘천지의 마음’인 동시에 만화萬化의 근본을 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선악善惡의 기미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²⁰⁾

인간은 생의를 받고 태어나지만 선악과 결부될 수밖에 없다. 선악의 기미는 타고난 성에 형기의 개입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은 이를 제어하고 타고난 본성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에 중과 그 위로 화를 배치한 것도 이러한 전제와 연결된다.

둘째, 천형, 지형, 인형에서 형形을 삭제하고 천지인天地人을 세로로 나란히 배열했다. 특히 천을 원 안에다 썼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천지인의 삼재三才를 뚜렷이 나타내면서 이 모두를 인간의 영역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 의도는 아닐까 한다.²¹⁾ 앞서 언급한 “오직 천하의 총명과 예지로서 지극한 정성으로 씀 없이 그 타고난 성을 다 실현할 수 있는 자만이 마침내 그 기미를 살필 수 있다.”라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인간의 마음 안을 ‘중中’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지운의 「천명도」에서 마음 부분에 오상을 네 방향에 배치하고 그 가운데가 경과 준양성찰로 이루어져 있음을 상기할 때, 그는 천에서 내려오는 흑백의 음양 표시를 흐릿하게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리기론적 접근을 피하고자 했다. 그 대신 『중용中庸』의

20) 『河西先生全集』 권12, 「雜著, 李至男字說」, “易曰, ‘復其見天地之心’, 蓋天地以生物爲心, 而乾剝爲坤諸陽道盡, 則生生之理, 或幾乎息矣. 而冬至至之半, 一陽初動, 則動之端乃所謂天地之心, 而萬化之源於斯見矣. 善惡之幾亦猶是耳.”

21) 『河西先生全集』 권11, 「序, 學專上人詩軸序」, “六合之外, 人孰而知之, 其或知之, 人孰而言之, 其或言之, 人孰而信之, 其或信之, 人孰而見之, 位乎其內者, 可知已. 蒼蒼乎惟天爲大, 而地包乎中, 人生其間, 是爲三才. 觀天之神道, 與之流行而不息者, 莫如水, 俯察乎地理, 則與之悠久而無疆者, 莫如山, 而吾與之竝立焉.”

‘중’을 표시하고 그 좌우에 인의예지의 리를 갖추고 있지만 혼연하여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로 이를 설명했다. 인의예지의 리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성을 말하며 이것이 혼연하여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은 미발의 중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그가 미발에 선악의 기미가 있다고 본 것은 아닌 듯하며 오히려 발한 이후 선악의 기미를 보고 판단하여 경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점은 정지운이 서문에서 밝혔던 『중용』의 의미²²⁾가 그림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이를 명확히 표현하고자 한 의도였을 것이다.

넷째, 원 밖에 이발已發의 칠정을 그리고 있다. 그는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성이 발하여 칠정이 되고 이 정에 의意와 기幾의 개입에 따른 중절 여부가 선과 악으로 나뉜다고 했다. 아래에 ‘선화善和’를 중심으로 좌우에 과불급을 적은 것이 바로 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그 기미를 파악하는 것이 연결고리인데, 이는 조치도趙致道の 「성기도誠幾圖」와 유사한 면이 있고²³⁾, 그런 점에서 인간의 의지적 판단이 관건임을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사단에 대한 언급 없이 하나의 정으로 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발의 때를 칠정의 선악이 아닌 중화로써 표현하여 천명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김인후의 「천명도」는 정지운의 것을 충실히 따르면서 자신의 견해로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간을 나타내는 부분에 보완이 집중되었다. 여기에 『중용』의 관점을 적극 도입하여 리기론적 접근이 아닌 중화로 읽어내고자 했다. 마음이 발하기 전에는 중의 상태로 있지만 발한 이후는 선악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그 기미를 보고 중절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천명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정지운에게 애매하게 처리된 이 부분이 김인후에게서는 명확히 나타난다. 즉 그는 인간의 마음을 중화

22) 『秋巒實記』, 『天命圖解』, 「序」, “中庸之書, 以天命二字, 爲一篇之始, 余嘗取以究之. 蓋天地所以命物者, 卽其一理也. 一理在天, 合之爲一本, 散之爲萬殊, 在一而不爲有餘, 在萬而不爲不足. 故吾人之受命于天也, 亦能全得其理, 而無多無寡焉. …”

23) 『心經附註』 권2, 「誠意章」, “趙致道問於朱子曰, ”周子云, ‘誠, 無爲, 幾善惡’, 此明人心未發之體, 而指其已發之端. 蓋欲學者, 致察於萌動之微, 知所決擇而去取之, 以不失乎本心之體而已.”; 유권중, 앞의 논문, 141쪽.

즉 성과 정, 그리고 정에 따른 선과 악의 분기를 일원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철저히 실천을 염두에 둔 단순화라고 할 수 있다. 이황이 그에 대해 “만년에 식견이 매우 정밀하고, 의리를 논하는데 쉽고도 분명하였다.”²⁴⁾라고 한 언급은 여기에 부합된다. 그러나 정의 발출에 대한 일원과 이원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품고 있었다.

5. 이황의 「천명도」 개정

이황李滉(1501~1570)이 정지운을 만나 「천명도」를 개정한 것은 1553년 이고 이후 몇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쳐 1558에 최종본을 완성한다. 이황이 정지운을 만나게 된 것은 조카 이교李喬에 의해 향간에 떠돌던 「천명도」를 보게 되면서이다. 그런데 실제로 본 그림은 자신이 본 것과 달랐다. 동학들 사이에 유포되고 정지운 스스로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의 수정이 이루어지니 그때의 그림이 바로 『퇴계문집』에 실린 「천명구도」이다. 그리고 그 해설은 『추만실기』에 「천명도설」로 실려 있어 이를 통해 그 변화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그림을 보면, 천원, 지방, 인형으로 나누었다. 천원은 세 개의 원에서 하나로 단순화했고, 천에서 지로 이어지는 것이 위로 위치를 바꾸면서 리와 기를 옆에 적고 리 파자 사이에 천명을 넣었다. 지방에 인형과 금수, 초목의 차이는 그대로 두되 인형에 하늘에게서 천명을 받아 그대로 마음 안의 성으로 이어짐을 표시했다. 마음은 두 겹의 원을 나란히 아래로 두 개를 그렸는데 위에는 미발의 상태를, 아래는 이발의 상태를 나타낸다. 전자는 밖을 기로, 안을 성으로 나타내되 인의예지의신이 네 방향으로 배치하고 그 안에 준양의 경을, 아래 원은 칠정을 네 방향으로 배치하고 그 안에 성찰의 경을 써

24) 『退溪先生言行錄』, 「類編, 論人物」, “金河西晚年所見甚精, 論說義理, 平易明白, 先生甚稱之(鄭惟一).”

넣었다. 또 위에 있는 원에 선을 이어 의에 따라 선기와 악기로 나뉘어 선기에 사단칠정이, 악기에 사단칠정이 멸식滅息, 괴려乖戾되는 것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사단발어리四端發於理, 칠정발어기七情發於氣가 뚜렷이 보인다.

이러한 그림에 10개 조목의 해설이 있는데, 그 차례를 보면 「제일절第一節 논천명지리論天命之理」, 「제이절第二節 논오행지기論五行之氣」, 「제삼절第三節 논리기지분論理氣之分」, 「제사절第四節 논생물지원論生物之原」, 「제오절第五節 논인물지수論人物之殊」, 「제육절第六節 논인심지구論人心之具」, 「제칠절第七節 논성정지목論性情之目」, 「제팔절第八節 논의기선악論意幾善惡」, 「제구절第九節 논기질지품論氣質之品」, 「제십절第十節 논존성지요論存省之要」이다. 앞서 정지운의 「천명도해」와 비교하면 「논오행지도論五行之道」가 「논오행지기論五行之氣」로 한 글자를 수정했고, 「논리기지분論理氣之分」을 추가했으며, 「논물생지원論物生之原」이 「논생물지원論生物之原」으로, 「논차심지구論此心之具」가 「논인심지구論人心之具」로, 「논선악지분論善惡之分」이 「논의기선악論意幾善惡」으로 수정되었다.

그 내용도 상당 부분 변화되었는데, 정정된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면 일부 정정과 전면 정정,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²⁵⁾ 먼저 일부 정정한 것을 보면, 「제일절 논천명지리」에서는 기본 논조를 유지하되 천명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사의 말과 기를 통한 만물의 차이, 소주에 일리一里와 사덕의 관계를 설명한 것을 모두 뺐다. 무엇보다 제목인 천명지리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바꾸었다. 「제이절 논오행지기」에서는 사덕인 리와 오행인 기를 설명하는데 체용體用의 관점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다만 리유체용理有體用은 아직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리에 대한 기, 기에 대한 리의 관계로 한정했다. 「제사절 논생물지원」에서는 만물을 낳는 근원에 대한 내용으로, 수수에 근본한다는 내용은 유지하되 천지가 생겨나는 까닭이나 생물의 근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치에 대한 부분은 삭제했다. 특히 후자는 천과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제오절 논인물지수」에서는

25) 글자의 동이同異에 대해서는 정병린, 앞의 논문, 239~240쪽 참조.

사람과 금수, 초목의 차이를 기의 편정偏正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대로이며 그림에서 그 형체가 방원과 황역의 다름에 대한 설명은 소주로 추가했다. 「제칠절 논성정지목」에서는 성정을 사덕과 오행으로 설명하여 천인일체天人一體를 말하고 있는데, 성은 하늘의 수와 같으나 정은 하늘의 수에 배가 되는 이유와 소주에 김인후의 말인 음양에 노소老少가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제구절 논기질지품」과 「제십절 논존성지요」은 「천명도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자는 사람과 사물의 차이만이 아닌 사람에도 상지^{上智}, 중인^{中人}, 하우^{下愚}의 구분이 있으니, 이를 기질의 청탁수박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지라도 형기의 발합이 있고 하우라도 천리의 본연이 없지 않으니, 학문이란 바로 천리를 알고 실천하는 데에 있기에 공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후자는 바로 그 공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미발일 때 존양공부를, 이발일 때는 성찰공부를 해야 하는데 경은 이 경우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지운의 언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전면 수정을 가한 것은 두 조목이다. 「제육절 인심지구」에서는 심을 리와 기가 모인 것으로 보며 성과 정을 리와 기에 대응하여 구분하고 심이 이를 통어한다는 내용을 다시 풀어 썼다. 여기에 선악의 문제를 연결하고 그림에서 의의의 형상에 대한 언급 대신에 칠정이 심권 밖에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제팔절 논의기선악」에서는 성과 심, 정, 의의 관계를 재정리하고 심의 미발과 이발 때에 기의 용사^{用事}로 선과 악의 갈림이 있게 되는데, 그 실마리가 미미하니 여기에 의가 심에서 발하여 작용한다는 것을 자세히 언급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한 것도 있다. 「제삼절 리기지분」은 정지운의 「천명도해」에는 없는 것으로 리기의 관계를 설명했다. 사덕인 리와 오행인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구별이 없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즉 불리^{不離}와 부잡^{不雜}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다만 여기에 부잡을 강조한 맥락은 없다.

이상 「천명도해」에서 「천명구도」로의 특징적 변화를 정리하면 첫째, 천원

을 하나의 원으로 하였고, 천과 인의 연결이 아래에서 위로 위치가 바뀌면서 명을 천명으로 분명히 적시했다. 하나의 원을 그린 것은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으로 이二的 화는 곧 일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합쳐 말하면 다만 하나뿐이다.”²⁶⁾라고 하면서 「태극도」는 리기의 본원과 조화의 기미에 대해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득이 나눈 것이고 이것은 “사람과 사물이 품부 받은 것을 단서로 하여 리기가 변화하고 생겨나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려 했으므로 하나로 하지 않을 수 없다.”²⁷⁾라고 했다. 이는 인간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천인 연결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도 이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 역시 「태극도」를 본떠 그리하니 태극도가 반드시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이유로 설명한다. … 「태극도」는 이와 다르니 리기에 근원하여 조화의 틀을 드러내면서 상천上天의 물에 명하는 도를 보였기 때문에 위에서 시작하여 아래에 이르렀다. 그런 까닭에 천의 위치가 본래 위에 있어 충해를 내린 명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간다고 여길 수 없기 때문이다.²⁸⁾

「태극도」에 따라 하늘이 위에서 명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바로 이러한 하늘의 명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천명의 의미에 적절한 것이라고 여겼다. 앞서 「천명도」가 유지했던 「주역」의 토대를 「태극도」에 연결한 것은 큰 변화이다. 「태극도」가 인간과 우주의 존재론적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천명도」는 그러한 점을 전제로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존재이어야 하는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우주론적 관점에서 인간론적

26) 『退溪先生文集』 권41, 「雜著, 天命圖說後叙」, “五行, 一陰陽也, 陰陽, 一太極也, 而二之化, 卽一之爲也. 故渾淪言之, 只一而已矣.”

27) 『退溪先生文集』 권41, 「雜著, 天命圖說後叙」, “是圖, 因人物之稟賦, 原理氣之化生, 不合爲一, 不成位置, 皆不得已而爲之者也.”

28) 『退溪先生文集』 권41, 「雜著, 天命圖說後叙」, “是亦倣太極圖而然也, 而太極圖所以必由上始者, 請言其故. … 至於太極圖, 則異於是, 原理氣而發化機, 示上天命物之道, 故始於上而究於下. 其所以然者, 天之位固在於上, 而降衷之命, 不可謂由下而上故也.”

관점의 전환을 보여준다.²⁹⁾

둘째, 심에서 미발과 이발의 상태를 두 개의 원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를 의意와 기幾로 이어진다. 이전의 「천명도」에는 미발만 하나의 원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는 이발 또한 마음의 작용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개의 원 안에 있는 내용은 정지운의 것을 따랐지만 이를 의와 기로 언급한 것은 김인후의 것을 따랐다. 그래서 성과 정을 표기하고 미발은 성으로 존재하여 선악을 말할 수 없지만 이발은 정으로 존재하여 선악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셋째, 정을 사단과 칠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앞서 「천명도」에서 칠정을 정의 총칭으로 이발의 단계에서 언급했다면 이황은 정을 사단과 칠정으로 분명히 나누었다. 의와 기를 적은 양 옆으로 실선을 그어 사단과 칠정을 표기하고 선기에는 사단칠정을, 악기에는 사단멸식四端滅息, 칠정괴려七情乖戾라고 써 놓고 그 아래에 사단발어리와 칠정발어기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전 「천명도」에는 없었던 부분으로 바로 사단칠정논쟁에서 기대승이 보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단과 칠정에 ‘발發’을 삽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정에 선악의 판단이 중요함으로 심의 체용을 근거로 발현한 정을 성과 연결하여 그 근원을 밝히고자 한 것은 아닌가 짐작된다. 이때 칠정에 대한 사단의 순전한 도덕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근원에서의 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³⁰⁾

이러한 변화는 『추만실기』의 「천명구도」와 「퇴계이선생천명도」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전자에서 선의 형태나 흑백의 차이, 천명 옆에 기가 없는 것 등이, 후자에서는 지형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며 리를 파자하지 않고

29) 박양자, 「퇴계의 「천명도설후서」에 관하여」, 『퇴계학보』 68집, 퇴계학연구원, 1990, 160쪽; 금장태, 「퇴계에 있어서 「태극도」와 「천명신도」의 해석과 상관성」, 『퇴계학논집』 87·88집, 퇴계학연구원, 1995, 588쪽; 김종석, 「퇴계철학의 구조와 내용」, 『퇴계학의 이해』, 서울: 일송미디어, 2001, 113~116쪽 참조.

30) 추제협, 앞의 논문, 141~146쪽 참조.

천과 명의 사이에 적은 것, 금수에서 성의 방향이 달라졌을 뿐이다.

물론 중요한 변화가 없지 않다. 사단과 칠정에 대한 ‘발發’의 표현이 주목된다. 전자는 사단지발순리고무불선, 칠정지발겸기고유선악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후자는 사단리지발과 칠정기지발이 적혀 있다. 이는 사단발어리와 칠정발어리에 대해 기대승이 의문을 제기하자 이황이 제안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정안이다. 기존의 언급이 리와 기를 지나치게 분별하여 마치 두 개의 사물인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비판에 이황이 동의하고 수정한 것이다.³¹⁾ 그림에 이 문구만 수정한 것으로 보아 논쟁의 과정에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두드러진 변화는 『추만실기』의 「천명신도」와 『퇴계문집』의 「천명신도」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문구의 위치 정도가 다를 뿐 거의 유사하다.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말하기 어려우나 좀 더 정돈된 것이 『퇴계문집』에 있는 「천명신도」이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천과 인을 이어준 선을 삭제했고 심을 나타낸 두 개의 원도 하나로 통일했다. 후자에 하나의 원으로 그린 것은 천의 형상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에 천과 인이 일체를 상징하는 이 선을 없앤 것은 바로 사덕과 오행, 리와 기가 실제에서는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를 갖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된다.³²⁾ 즉 천과 인은 명으로 연결된 일체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천은 엄연히 분리된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점은 앞서 「천명도」보다 분리의 측면, 즉 인간의 관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천명 양 옆에 ‘리기묘응理氣妙凝’이라는 말을 넣었다. 리기의 표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묘응이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온다. 이에 대해서 이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31) 『高峯集』, 『兩先生往復書』, 「退溪答高峯四端七情分理氣辯」, “往年, 鄭生之作圖也, 有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之說. 愚意亦恐其分別太甚, 或致爭端. 故改下純善兼氣等語. 盖欲相資以講明, 非謂其言之無疵也.”

32) 『退溪先生文集續集』 권8, 「雜著, 天命圖說」, “理外無氣, 氣外無理, 固不可斯須離也, 而其分則亦不可相紊而無其別也. 況陰陽五行, 本非二物.”

대개 「태극도」는 태극에서 시작하여 음양과 오행이 차례대로 나온 뒤에야 묘응妙凝의 권圈이 있다. 묘응妙凝의 권圈은 바로 이 그림에 계시한 천명天命의 권이다. 주자가 “태극에 동動과 정靜이 있는 것은 바로 천명이 유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이 말대로라면 「천명도」를 만드는 데는 마땅히 태극에서 시작해야 할 것인데, 지금 묘합이응妙合而凝에서 시작한 것은 무슨 까닭이겠는가? 인간과 물이 생겨난 이후로부터 미루어 올라가 묘응하는 곳에 이르면 이미 극치極致하기 때문에 이를 그림의 윗면에 해당시켜 천명을 처음 받는 곳으로 만들었다. 오행과 음양으로부터 이상은 천원天圓의 한 개 그림에 갖춰져, 태극의 무성무취를 묘사하지 않아도 그 안에 어묵불이於穆不已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림의 윗면 또한 어찌 편벽되어 수수가 왕성한 자리에만 해당한다고 하겠는가?”라고 하였다.³³⁾

천명은 그림의 윗면에 위치하여 리기가 묘합하여 응집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리기가 묘합하여 응집한다는 말은 무극인 리와 음양오행인 기가 묘합하여 만물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생성된 것이 바로 인간, 초목, 금수이다. 결국 리기묘응을 덧붙인 것은 천명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³⁴⁾

셋째, 이러한 맥락에서 여전히 사단과 칠정은 리지발과 기지발의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논쟁 과정에서 이황은 최종 수정안으로 사단즉리발이기수지四端卽理發而氣隨之, 칠정즉기발이리승지七情卽氣發而理乘之를 제시했지만 그의 궁극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분별을 끝까지 고수했다. 사화士禍 속에서 인간에 대한 환멸은 오히려 희망의 토대임을 깨닫게 되고, 그 희망의 근거인 인간의 순선성을 감정

33) 『退溪先生文集』 권41, 「雜著, 天命圖說後叙」, “蓋太極圖, 始於太極, 次陰陽五行而後, 有妙凝之圈, 妙凝之圈, 卽斯圖所揭天命之圈是也. 朱子云, 太極之有動靜, 是天命之流行也, 信斯言也, 爲天命之圖, 當始於太極, 而今乃始於妙合而凝, 何哉? 從人物既生後推而上之, 至於妙凝處, 已爲極致, 故以是當圖之上, 而爲天命之際接, 其自五行陰陽以上, 則固具於天圓一圖, 而太極之無聲無臭, 又不待摹寫, 而互於穆不已於其中矣. 然則圖之上面, 亦豈偏當水旺之次云爾哉.”

34) 강경현, 「퇴계 이황의 「천명도」에 대한 분석-천명권天命圈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131집, 퇴계학연구원, 2012, 11~14쪽 참조.

이 일어난 후에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근원에서부터 철저한 분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³⁵⁾ 다만 최종안에 기를 언급한 것은 주자학의 리기불리라는 전제를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다른 아닌 『고봉집高峯集』에 수록되어 있는 『양선생왕복서兩先生往復書』에 나온 「천명도」이다.³⁶⁾ 가장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이황의 최종안을 표기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리지발과 기지발로 되어 있다. 결국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분리를 견지했고 이를 「천명도」에서 선명히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천명도」를 보면서 이황의 지분이 생각만큼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천명도」는 비록 정지운이 만들었지만 많은 부분 이황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기에 이황의 「천명도」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사단칠정에 대한 발의 문제가 논쟁으로 이어져 지나치게 부각된 것을 제외하면 천과 인의 연결을 아래에서 위로 그 위치를 조정하고 이를 하나의 원을 일원화하면서 그 연결선을 삭제한 것에 국한된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천명도」 전체를 감안하면, 특히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오히려 그 대략은 정지운과 김인후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완성되었고 이황은 이를 천명의 의미에 맞게 재구성하는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6. 「천명도」의 개정과 인간학의 정립

중국유학에 대한 조선유학의 특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단칠정, 인물성동이, 심설 등 일련의 논쟁에서 드러난 심성론에 대한

35) 추제협, 앞의 논문, 139쪽.

36) 이정환은 『퇴계문집』의 「천명도」를 정본正本으로, 『양선생왕복서』의 「천명도」를 정본定本으로 보고 있다. 이정환, 앞의 논문, 42쪽.

천작은 이에 대한 좋은 대답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사단칠정논쟁은 그 시발점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정작 이 논쟁의 발단이 되었던 「천명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고, 그 결과 판본의 혼란에서부터 도상과 성리학적 견해의 차이는 물론 그 변화 양상과 의미 등에 대해 여전히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지운의 「천명도」에서 이황의 「천명도」가 정립되는 과정의 변화양상을 재검토해보았다. 「천명도」 간의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지금의 「천명도」가 당대의 유학자들의 학술적 담론을 통해 얻은 최종 성과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그렇게 하여 하나의 그림이 우주가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 근원인 우주와 만나고 그 우주 속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존재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여정에 도상은 크게 세 차례의 변화를 거쳤다.

우선 정지운의 「천명도」는 천, 지, 인의 관계를 설정하고 천과 인은 일체이라는 전제에서 인간을 그린다. 천명으로 성을 받은 인간은 기의 편정으로 인해 초목과 금수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표현했다. 그 인간의 주재는 마음에 있으니 이 마음이 발하기 전에는 온전한 성이 있어 선악을 논할 수 없지만 발한 후에는 마음의 의향에 따라 선과 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인후의 「천명도」는 이러한 정지운의 「천명도」를 충실히 계승하되 그 중 인간을 나타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정했다. 무엇보다 이 부분이 애매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명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중용』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마음을 중화로 표현하고 이를 선악의 문제와 결부시켜 일원화했다. 이는 실천을 염두에 둔 단순화이면서 정의 발출에 대한 일원과 이원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황의 「천명도」는 앞서 두 「천명도」를 적극 수용하여 이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천지인의 기본적 틀은 유지하되 그 방향을 아래에

서 위로 위치를 이동하고 각 형태를 하나의 원으로 일원화하면서 연결선을 삭제했다. 이는 천명의 의미를 『주역』이 아닌 『태극도』의 연장선상에서 보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인간의 마음을 두 개의 원으로 그려 미발와 이발이 모두 마음의 작용임을 나타냈다. 그리고 원 안의 내용은 정지운의 것을, 그 사이의 연결고리는 김인후의 것을 수용했다. 특히 의와 기에 따른 사단과 칠정의 분리는 몇 차례의 수정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정의 발출을 이원적으로 보려는 이황의 의도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단 즉 천명의 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천명도」는 정지운이 천명이란 인간과 우주의 관계 속에 인간의 위상을 나타내는 그림의 대략적 구도를 그렸다면 김인후는 여기에 인간의 길을 설정하였으며 이황은 이를 종합하고 재구성하여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7년 2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3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중용혹문』

『추만실기』

『퇴계선생문집』

『하서선생전집』

『양선생왕복서』

강경현, 「퇴계 이황의 「천명도」에 대한 분석-천명권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131집, 퇴계학연구원, 2012.

금장태, 「퇴계에 있어서 「태극도」와 「천명신도」의 해석과 상관성」, 『퇴계학논집』 87·88집, 퇴계학연구원, 1995.

김보름, 「퇴계의 천명도설을 통해 본 자연과 인간의 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2004.

김용현, 「고봉 기대승의 사칠논변과 천명도」, 『전통과 현실』 8집, 고봉학술원, 1996.

김종석, 「퇴계철학의 구조와 내용」, 『퇴계학의 이해』, 서울: 일송미디어, 2001.

박양자, 「퇴계의 「천명도설후서」에 관하여」, 『퇴계학보』 68집, 퇴계학연구원, 1990.

방현주, 「「천명도」의 판본문제 고찰」, 『한국철학논집』 40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4.

안유경, 「천명도설로 보는 심성구조」, 『퇴계학과 심성론』, 서울: 심산출판사, 2016.

유권중, 「천명도 비교 연구: 추만, 하서, 퇴계」, 『한국사상사학』 19집, 한국사상사학회, 2002.

유정동, 「천명도설에 관한 연구」, 『동양학』 12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2.

유정동, 「천명도해고」, 『유교의 근본정신과 한국유학』,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2014.

이정환, 「퇴계 천명도설과 천명도에 대한 철학적·도상적 재검토」, 『퇴계학보』 135집, 퇴계학연구원, 2014.

- 정경훈, 「추만 정지운과 『추만실기』, 『유학연구』 2집, 충남대 유학연구소, 2010.
- 정병련, 「추만의 『천명도설』 제작과 퇴계의 정정, 『철학』 38집, 한국철학회, 1992.
- 추제협, 「이황의 사단칠정론과 마음공부, 『안동학』 13집, 한국국학진흥원, 2014.

 Abstract

Revision of Toigye, Kim In-hu's T'ienMing drawing(天命圖) and Anthropology

Choo, Je-hyeop

This article is about the revision of T'ienMing drawing(天命圖). I pay attention to revision process of T'ienMing drawing(天命圖) from Jung ji woon to Kim In-hu and Yi Hwang's completion. Through this, I confirmed that T'ienMing drawing(天命圖) is final achievement through scientific discussion between the greatest educated people of the time and base of anthropology in studying the Joseon Dynasty. According to Jung Ji-woon, T'ienMing(天命) is the picture describing man's status in the universe. But Kim In-hu attached the way of Man to T'ienMing(天命) and Toigye synthesized all these things; that is, he completed T'ienMing drawing(天命圖).

key words: Jung Ji-woon, Yi Hwang, Kim In-hu, T'ienMing drawing, Anthropology

보충자료

그림1 - 추만천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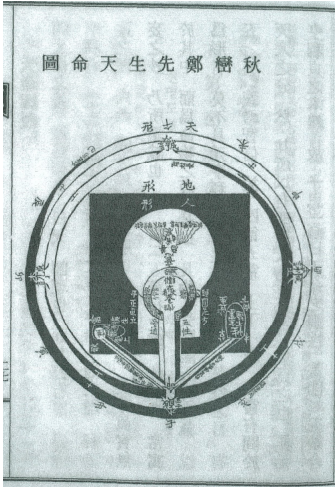


그림2 - 하서천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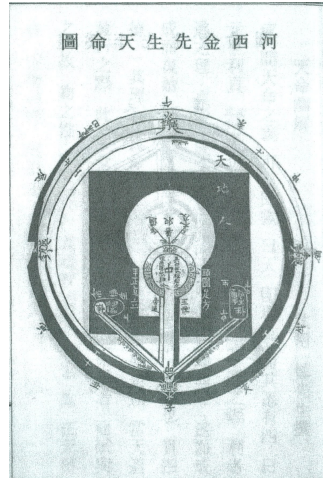


그림 3 - 퇴계문집본 천명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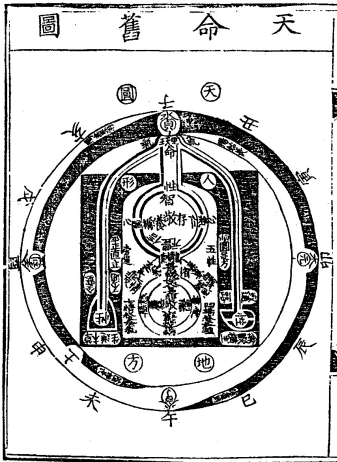


그림 4 - 추만실기본 천명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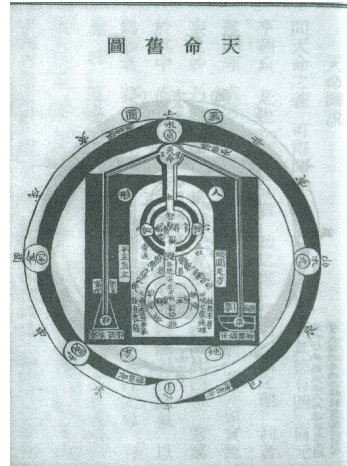


그림 5 - 추만실기본
퇴계이선생천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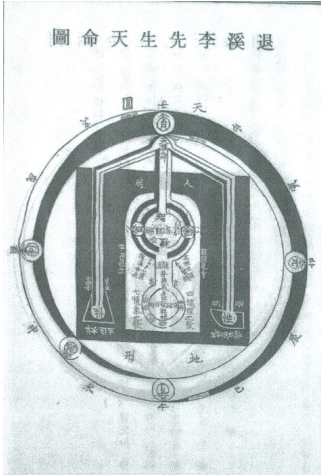


그림 6 - 추만실기본 천명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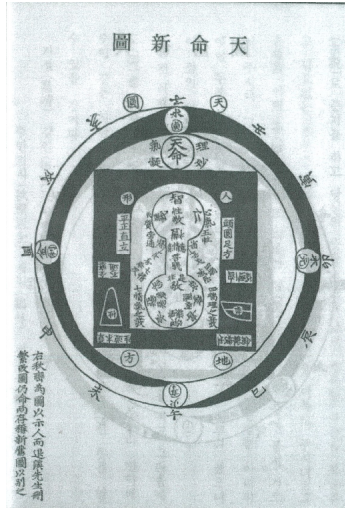


그림 7 - 퇴계문집본 천명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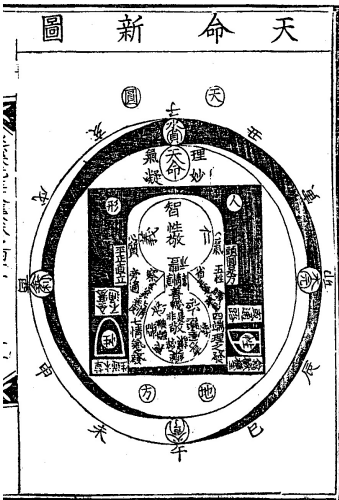


그림 8 - 양선생왕복서본 천명도

